기 고

주 홍 준 국립공원공단무등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장

등급이 없고 동등한 무등(無等)의 세상을 꿈꾸며

산림학을 공부하면서 아쉬웠고 힘들었던 부분은, 순화되지 않은 일본식 용어가 넘쳐나는데 있었다. 도장(徒長)은 웃자람을, 위조(萎凋)는 쇠약하여 마름을, 시비(施肥)는 거름주기라는 좋은 우리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NO JAPAN이 구호로만 남지 않고 지속가능한 실행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에 뿌리내려 있는 일제잔재를 하나씩 제거해 나가는데 있다. 출발이 잘못되면 그것을 바로잡는데는 더 많은 노력과 고통이 따르듯이, 시작의 중요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무등산 자락에 국화향이 그윽하게 퍼지고 있다. 전남 화순읍에 있는 남산공원에서는 국화꽃의 향연이 시작되었고, 도립공원이었던 무등산이 2013년에 21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후 6주년을 맞은 올해 무등산국립공원 동부사무소는 신청사를 준공하여, 대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이를 계기로, 그 간의 공원관리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비전을 제시하고자 한다.

무등산국립공원 동부사무소는 무등산이 갖고 있는 천혜의 자연을 보전하고자 자연생태계 종합복원계획을 수립하여, 무등산 정상부에 있는 지왕봉과 장불재 일원을 체계적으로 복원하였고, 소리경관이란 새로운 개념의 자원을 활용하여 공원관리에 활용하는 등 다양한 생태계 보전사업을 추진하였고, 잘 보전된 자연생태계를 탐방객과 지역주민들에게 생태복지의 혜택으로 돌려주고자 화순전남대학교병원과 다수의 요양병원과의 협업하여 '암환자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아토피, 천식 등 환경성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들에게 자연 속 치유의 기회를 제공하는 건강나누리 캠프를 특화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참가자들의 높은 호응을 받고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추어 GIS 기술과 DB를 접목한 '무등산 스마트파크(Smart Park)' 공원관리 모델을 구축하여, 국립공원의 다양한 정보를 3D맵을 통해 한 눈에 파악하고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대국민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다.

아울러, 지역내 도시락업체와 연계한 '친환경 도시락 배달 서비스'를 통해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 환경을 살리고,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는 일석이조의 신규 일자리 창출 사업을 하여 탐방객, 지역사회와 국립공원이 상생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정상부 탐방예약제'를 통해 자연의 주인인 야생 동·식물에게도 사랑받는 공원관리를 위해 진취적인 자세로 남겨진 숙제를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고자 한다.

그러나, 그간 다방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한 공원시설 인프라 확충, 국립공원 지정으로 인한 주민불편의 제도적 개선, 정상부 군부대 이전과 방송통신시설의 이전은 지속적으로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아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영취산(靈鷲山)에서 설법을 한 석가가 연꽃을 들고 말없이 대중을 보았다. 모두들 무슨 뜻인지 몰라 어리둥절하고 있을 때, 제자 가섭(迦葉)만이 그 뜻을 깨닫고 미소로써 답하였다. 국립공원공단이 연꽃을 보였을 때, 국민들이 미소로써 답할 수 있게 하려면, 지역주민과 탐방객들과 함께 공감하고 소통할 때 비로소 완성됨을 알기에, 국립공원의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지속적인 응원을 부탁드린다.

社 說

복비 투명성 확보돼야 한다

내년 2월부터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계약을 중개할 때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계약자와 중개수수료를 협의하고 확인 도장까지 받아야 한다.

한국감정원에 부동산 중개업자의 부당 행위를 신고받아 처리하는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가 설치돼 가동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이들은 경과규정 등을 거쳐 내년 2월 시행된다.

우선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에 내는 수수료, 즉 복비를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계약자에게 정확하게 설명하고 확정해야 한다.

부동산 수수료는 최대 요율만 정해져 있고 구체적인 요율은 거래 당사자와 중개사간 협의를 통해 정하게 돼 있으나, 최대 요율이 중개사가 받는 고정 요율인 것처럼 여겨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공인중개사가 매물을 중개할 때 수수료는 잘 설명하지 않고 잔금을 치를 때가 돼서야 말을 꺼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중개사가 최대 요율을 제시해도 계약자는 이미 매매 절차가 끝난 마당에 이를 따를 수밖에 없다.

내년 2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는 중개사가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른 최대 수수료율을 설명하고 계약자와 협의를 통해 수수료를 얼마로 정했는지 정확한 내용을 기재하게 돼 있다.

계약자가 수수료가 어떻게 책정됐는지 충분한 설명을 들었다는 확인란도 신설된다.

이와 함께 내년 2월부터 감정원에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가 가동된다.

이는 최근 정부가 신고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담아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된 데 따른 후속 입법이다. 국토교통부의 이같은 시행령이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투명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수있기를 기대한다.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전통시장 화재예방, 이것만은 지키자

지난 9월 22일 동대문 제일평화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23시간 여 만에 진화됐다. 진화시간이 길어진 이유는 불이 옮겨 붙기 쉬운 옷가지가 많았고, 화재에 취약한 건물 구조로 진화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화재원인과 피해액은 앞으로 정확한 감식과 조사를 통해 밝혀지겠지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지난 2017년 1월 15일 새벽 2시경에도 여수 수산시장에서 전기가 원인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2시간여 만에 진화됐으나, 117여개의 점포가 잿더미로 변하고 70여억 원의 막대한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소방청 통계자료에 의하면 지난 5년('14~'18년)간 전통시장 화재는 총 236건이 발생해 15명의 인명피해(사망 1, 부상 14)와 525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대로는 인적이 드문 오후 8시부터 새벽 4시 사이가 46.6%로 가장 많았고, 전기적 요인이 45.3%로 나타났다.

전통시장은 풍성한 먹거리와 볼거리가 가득해 사람들의 정과 활력이 넘치는 지역의 명소다. 그러나 오랜 역사의 전통시장은 시설노후화와 밀집된 점포, 겹겹이 쌓인 가판대 등으로 인해 화재가 나면 막대한 피해가 뒤따른다.

따라서 전통시장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다음 몇 가지 사항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첫째, 시장상인은 각 점포의 문어발 콘센트 사용을 자제하고, 부득이 사용해야 할 경우 과부하 차단기능이 있는 콘센트를 사용한다.

둘째, 시장 이용객은 소방차진입로에 불법 주정차를 삼가고, 상인들 또한 소방차 진입로에 상품을 진열하거나 고정식 좌판대, 천막 등을 설치하지 않는다.

셋째, 상인과 관계인은 초기화재 시 신속한 진화를 위해 각 점포마다 소화기를 비치하고, 사용법을 미리 익혀둔다.

넷째, 영업이 종료되면 모든 전원의 차단기를 반드시 내리고, 주변에 화기는 없는지 철저히 확인한다.

이상 전통시장 화재예방을 위한 몇 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봤다.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시장 관계자와 상인, 이용객, 유관기관 등 모두가 혼연일체 되어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인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고, 안전하고 즐거운 전통시장을 만들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임영진 / 화순 능주119안전센터 지방소방위

생활정보전화		긴급전화	
▲이주여성 긴급전화	1577-1366	▲기상예보	131
▲응급질병상담	1399	▲법률구조상담	132
▲미아 · 가출인 신고	182	▲인광 알코올 상담센터	222-5666
▲여성 긴급전화	1366	▲광주 남성의 전화	673-9001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	1388	▲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9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수도 고장신고	121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전기고장 신고	123
▲응급의료센터	1399	▲가스사고 신고	383-0019

등록번호 광주 가 00021 (일간)
호남신문
대표전화 (062) 229-6000
광고국 (062) 224-5800
팩스 (062) 222-5547
대표이사·회장·발행인 김평호
편집인·편집국장 강서원
본 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서울 취재 본부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1동 167-16
Tel (02) 2238-0003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1946년 3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쇄 (주)남도 프린테크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